

격동의 세계, 한층 더 강력한 연계를 부탁드립니다



이데 요시오 토마스 아퀴나스
의료법인 눈의 성모회 성마리아병원 이사장

+ 주님의 평안

한국 가톨릭의료협회 여러분, 2009년 새해의 시작을 함께 축하합니다.

작년 말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가 세계 속으로 파급되고 있지만, 그것은 인류가 만든 경제 활동의 비참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람직한 경제 이론에 대한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섭리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에 준 영향은 당초에는 경미하다고 보도되었지만, 올해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경제가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도요타, 닛산 자동차' 등의 자동차 산업, 그리고 '파나소닉, 소니' 등의 전기 기기 산업의 대폭적인 적자 결산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 기관의 주가 폭락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의 저하, 또 용자 감소로 중소기업의 도산 및 감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어 기업의 파견 직원, 정규 직원의 해고 및 조직 개편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톨릭 주교 협의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과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 서비스, 숙소 제공, 또 주교 협의회의 주교단이 직접 식사 제공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노숙자들과 함께 간이 숙소에서 생활하는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복지 체제 역시 앞으로 크게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수년간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르는 사회 보장비의 삭감을 위해 매년 2,200억 엔(¥)의 사회 보장비의 삭감 정책이 실시되어 왔지만, 국민연금 기록의 허술한 관리, 그리고 구급 의료의 상징인 의사들이 의사 편제로 인한 의료 공급 체제의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건강 보험 제도의 일부 개정을 동반한 고령자 대상의 시책에 대하여 국민이 반발하고, 장애자, 개호자 입소 시설의 보험료 급부 압축 정책으로 입소 시설의 경영 악화 등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입니다. 차후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유지를 위하여 '중(中) 복지, 중(中) 부담'의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상의 부담을 기본으로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더라도 소비세 세율 인상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경제

침체 가운데에서도 그 도입 시기에 관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작년 성마리아병원은 국가 정책에 따른 기능으로서 여러 가지의 거점병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의료 기관을 지원하는 지역의료지원병원, 우리나라의 질병 대책(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당뇨병)으로서의 병원, 그리고 거점병원으로서 종합주산기의료센터(NICU :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新生児集中治療室 /MFICU : maternal-fetal intensive care unit, 母体胎児集中治療室), 지역재해거점병원, 구명구급센터, AIDS 거점병원, 암진료연계거점병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원내 조직 개편, 원내 IT 재구조화를 검토하여 현재 새 병동의 건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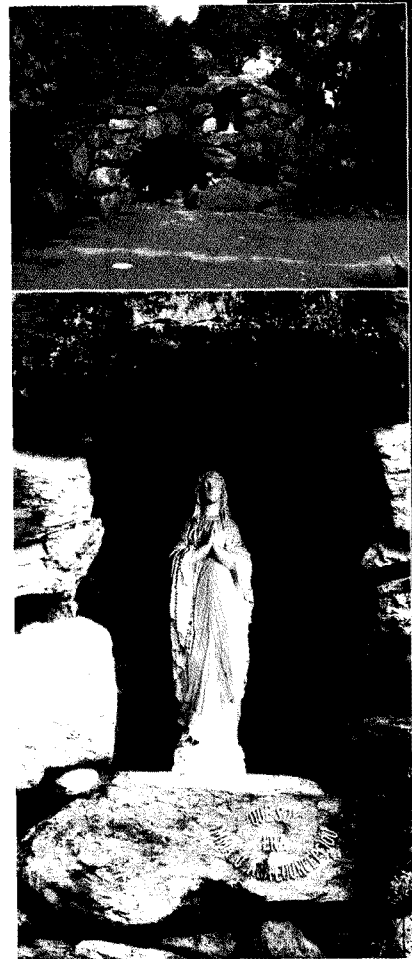
또한 성마리아병원의 계획으로서 병원 수입의 중심이자 진료 보수 제도의 하나인 DPC*를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저희 병원도 도입하고 있지만, 주로 대학병원, 국·공립 병원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질병별 연계 패스의 도입으로 인한 연계를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의사의 편제 등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긴급하게 올해부터 약 800명의 의학부 학생 정원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졸업 후 의사 연수 체제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이러한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 임상 연구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들은 한국가톨릭의료협회로부터 정성스러운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병원의 운영과 진료에 있어서 '하느님의 묵시'에 대한 실천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년 11월 24일 나가사키에서 이루어진 '시복식' 공동 참가는 일본 가톨릭의 새로운 탄생일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가톨릭 이념을 바탕으로 한 병원 운영과 진료 활동, 그리고 하느님의 묵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은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하느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너무나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가톨릭 이념을 근거로 하여 국경을 넘어서는 공동의 활동은 세계적으로 흥미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껴집니다. 국경을 넘어선 '가톨릭 의료 문화'를 창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층 더 깊은 연계를 맺는 것을 소망하며 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감사
2009년 2월 1일

* DPC : 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는 주병명·처치·합병증 등의 인자를 모은 일본 단독의 진단군 분류입니다.

가톨릭 이념을 근거로 하여 국경을 넘어서는 공동의 활동은 세계적으로 흥미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껴집니다. 국경을 넘어선 '가톨릭 의료 문화'를 창조하고 싶습니다.



루르드 성모님

激動化の世界、より一層の強力な連携をお願いします。

医療法人 雪ノ聖母会
聖マリア病院
理事長 井手 義雄

↑ 主の平安

韓国CMCの皆様、2009年の新しい年のスタートを共にお祝いしたいと思います。

さて、昨年末以来の「欧米で発生した金融危機」は世界中に波及しておりますが、人類が作り出した経済活動の哀れな結果と思わざるを得ません。神様の御摂理による経済理論の再構築が必要であることを改めて警鐘された結果と思えます。

「欧米で発生した金融危機」のわが国への影響は、当初は軽微の影響とのことで報道されておりましたが、今年に入って急激な経済の悪化を来しております。わが国の代表的な企業であります「トヨタ、日産自動車」等の自動車産業、また「パナソニック、ソニー

」等の電器機器産業の大幅な赤字決算の見込みが報じられています。さらには、金融機関の株価低迷等による自己資本比率の低下、また融資の停滞による中小零細企業の倒産、減産の状態となっております。この数年は、マイナス成長が予想され企業の派遣職員、正規職員の解雇、リストラの増加が予想されています。

日本の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もこれらの問題に対し、日本で働く諸外国の労働者への支援、ホームレスの方々への食事サービス、宿舎の提供、さらには司教協議会の司教団自ら食事提供サービスの経験、ホームレスの方々との簡易宿舎での生活の実施体験まで行っております。

さて、このような経済状況下におけるわが国の保健・医療・福祉の体制も、今後大きく変更せざるを得ない状況となっております。この数年、少子高齢社会の移行に伴う社会保障費の削減のために、毎年2200億円の社会保障費の削減政策が実施されてまいりましたが、国民の年金記録のずさんな管理、また救急医療等に象徴される医師偏在に伴う医療供給体制の崩壊、国民健康保険制度の一部改正に伴う高齢者への施策の国民の反発、障害者、介護者入所施設への保険料給付の圧縮による入所施設の経営悪化等、国民生活に影響を及ぼす状況となっております。今後のわが国の社会保障制度維持のために、「中福祉・中負担」の選択を行うのか、また財政上の負担のあり方として国民全体に及ぼす消費税の税率アップ、経済低迷下での導入時期が議論されています。

昨年、聖マリア病院は、国の政策に基づく病院機能として種々の拠点病院の指定を付与されました。地域の医療機関を支援する地域医療支援病院、今後のわが国の疾病対策（がん、脳卒中、急性心筋梗塞、糖尿病）としての病院、また拠点病院としての総合周産期医療センター（NICU・MFICU）、地域災害拠点病院、救命救急センター、AIDS拠点病院、がん診療連携拠点病院の指定を受けました。またこの間、病院内の組織の変更、病院内ITの再構築の検討を行い、現在次期新病棟の建設を計画中であります。

今後の聖マリア病院の対応であります。病院の収入の中心であります診療報酬制度の一つでありますDPC（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への対応を強化致します。この制度は、私どもの病院も導入しておりますが主に大学病院、国立・公的病院等で導入されております。この制度と地域医療機関との疾病別連携パスの導入により連携の強化を行う予定です。また、医師の偏在等に伴う医師不足問題が議論されました。緊急的に本年より約800名の医学部の学生定員増が実施されるとともに、卒後医師の研修体制が見直されています。私どもの病院もこれらに対応すべく臨床研究所の設置を検討しております。

昨年、私どもは皆様方の暖かいご支援を賜りました。特に私どもの病院運営、また診療における「神様の黙示」に基づく実行を教えて頂きました。昨年11月24日の長崎での「列福式」への共同参加は、日本のカトリックの再生のみならず、私どもの職員一人一人に大きな勇気を与えて頂きました。カトリックの理念に基づく病院運営、診療活動は、すなわち神様の黙示であることの確認と自信は、何事にも替えられない神様のお恵みと思えます。今後の世界の状況は全く不透明ですが、カトリックの理念に基づく国を超えた共通の活動は、混迷する世界、国内において行動を起こす唯一の方法と感じています。国を超えた「カトリック医療文化」を創造したいと思えます。今後ともより一層の連携を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神に感謝

2009年 2月1日

DPCとは、主病名・処置・合併症などの因子を組み合わせた日本独自の診断群分類です。